



문화도시 정책의 흐름과 동향 그리고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지난 2019년 12월 30일,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는 제1차 문화도시가 법적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이 실제로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올랐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문화도시 개념과 사업을 도입한 2004년의 지역거점문화도시 추진 이후 약 15년만이며,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이 준비된 이후 약 5년, 동시에 2018년 5월 정식의 문화도시 정책의 추진 공표 이후 약 2년만의 결과이다.

이 글에서는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 본격 추진에

붙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이 어떻게 수립되고 진행되어 왔는지 전반적 흐름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이슈 및 의제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2. 문화도시 관련 일반 개념과 정의

■ 문화도시에 대한 개요 및 일반개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가 고유하게 가지는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창의적-혁신적인 지역성장 및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기본적인 지향점을 두고 있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총사업비 최대 200억원(국비-지방비 매칭)의 규모로 사업추진 및 지원

도시가 고유하게 가지는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창의적-혁신적인 지역성장 및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기본적인 지향점을 두고 있다.

먼저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다. ‘제2조의 정의’에서 법정 문화도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4장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련내용을 제시하여 법정 문화도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된 문화도시의 개념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 정의된다. 다만,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법 정의와 이론적 정의의 함의점을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정 지정도시”로 종합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과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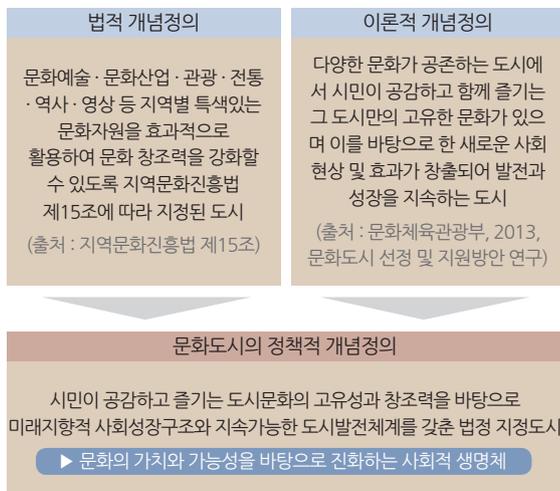


그림 1 | 문화도시의 개념에 대한 일반 정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의 절차를 살펴보면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도시자체에서 지정희망연도

로부터 약 2년 전까지문화도시 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승인 과정과 예비사업 추진-관리, 그리고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문화도시 지정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에 의한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이후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게 된다.

■ 문화도시 추진 및 사업 주요내용 요약

현재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총사업비 최대 200억원(국비-지방비 매칭)의 규모로 사업 추진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이후 도시 자체적으로 지속).

문화도시 사업모델은 도시의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기획과 경영을 통해 새로운 사회성장 및 발전의 구조와 효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라 요약할 수 있으며, 그 최종적인 목표는 지역 사회가 공유하는 고유의 문화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와 사회가 연결되는 가치사슬에 기반하여 문화기반 사회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의 문화 브랜드를 생성하고, 지역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효과를 발현하는 것이다.

사업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분야전문가 - 공공행정이 함께 기획 및 추진하는 공동거버넌스 구축, 둘째, 문화의 인적자원(Hu.w.) - 운영자원(So.w.) - 공간 및 시설자원(Ha.w.)의 종합적 사용, 셋째, 문화도시와 각 부처, 여타사업의 연계 및 복합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사업주요내용으로는 도시문화의 경영-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으로서의 문화도시센터 구성 및 운영으로부터 문화기반 사회자본 육성 및 문화활동 지원, 문화바탕의 사회실험 및 창업육성, 문화재생을 통한 창의문화지구 형성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도시의 문화를 성장시키는 모든 문화기획 및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

문화를 성장시키는 모든 문화기획 및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문화도시의 사업모델은 중앙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지역의 도시지자체가 지역의 문화로 발전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 및 기획하고 원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는 지역제한형 구조로 문화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 분권 및 자치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3 문화도시 정책의 흐름과 동향¹⁾

■ 문화도시 추진의 배경

2000년대 들어 탈산업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 산업경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도시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의 각 도시는 새로운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이슈 및 의제를 발굴하며 다양한 접근과 이에 대한 탐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 중 매우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문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유럽의 문화수도, 유네스코의 창의도시네트워크 등 현재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의 문화도시 전개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와 같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국외의 상황 및 환경에 대해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를 핵심적인 의제와 환경요건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80년대 초반부터 논의 및 추진된 유럽 문화수도가 1999년을 기점으로 정식 제도로써 정착되었으며 이와 함께 2000년대 초반 유네스코에서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준비가 진행되고 2004년에 최초 선정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국외에서 문화와 도시의 의제가 부각되고 문화적인 도시에 관련되는 제도와 사업 등의 추진이 활성화되는 시점이었다. 이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에서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계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스스로 개발 및 기획하고 원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는 지역제한형 구조로 문화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역 분권 및 자치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내포

문화도시 사업의 개념 총괄 정의				
사업 정의	문화도시사업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 [City's Culture Plan] - 시민이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			
사업 대상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도시 광역지자체(시도) / 기초지자체(시군·자치구) 단위의 모든 도시 [Every City is Unique]			
사업 규모	문화도시 지정 후 5년간 총사업비 기준 최대 200억원의 규모 추진·지원 (구체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			
사업 내용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모든 범위의 문화프로젝트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사업 문화도시 운영·관리 문화인재 양성·지원 ...	도시고유의 문화력 강화 사업 도시가치 발굴·활용 지역문화 활성화지원 ...	문화적 사회 효과 발현사업 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문화적장소 재생사업 ...	지역제한형 고유특성화 사업 도시에서 원하는 중요사업 직접 제안 ...
사업 핵심 가치	문화적 도시철학	지역문화의 진흥	문화를 통한 사회발전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의 가치와 철학 생성	문화도시 추진·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진흥	문화를 통한 지역 자치 기반구축 및 사회활성화	

그림 2 | 문화도시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1) "3. 문화도시 정책의 흐름과 동향"에 대한 내용은 참고문헌의 자료 중 "서우석, 조광호(2019), 문화도시 사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 유럽문화수도와 한국 문화도시 사업의 전개과정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 연구」제22권 제1호, pp 129~160."에서의 한국의 문화도시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및 발췌하여 작성한 원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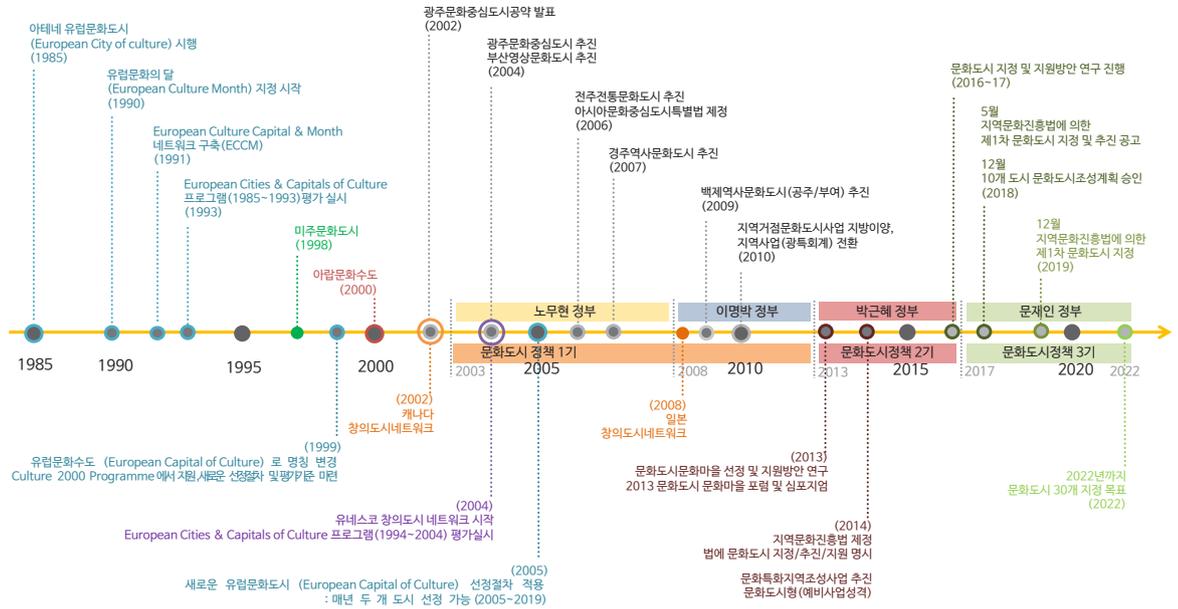


그림 3 | 문화도시 추진 흐름에 대한 종합 및 요약

시작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2020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공약을 계기로 지역이 중심 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후 2003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을 국가정책과제로 공표하면서 국내에서 문화도시가 본격적인 정책사업으로서 도입되어 추진하기에 이른다.

■ 문화도시 추진흐름 1 - 2002~2012년까지

한국의 문화도시 추진은 2000년대에 들어선 각 정부시기별로 정책의 기조와 관점, 흐름에 따라 그 전개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노무현 정부로부터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03년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큰 축으로 하는 문화도시를 국책사업으로 도입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2004년,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거점문화도시 사업

사업을 5개 도시에서 4개 사업으로 묶어 본격적인 지역거점문화도시 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그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노무현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지역거점문화도시 사업은 이명박정부 시기에 들어오면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2010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거점문화도시 사업이 국가지원사업에서 지역사업으로 이양(당시 광역특별회계사업)되면서 국가과제보다는 지역과제로서 추진되는 구도로 변화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업예산 지원 등 회계제도 전환으로 인한 예산투입의 불확실성 및 원활하지 못한 추진 거버넌스 협력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불협화음 등으로 인해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2003년 문화도시를 국책사업으로 도입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2004년,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거점문화도시 사업

■ 문화도시 추진흐름 2 - 2012~2017년까지

2013년~2017년까지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문화도시의 추진보다는 행·제도적 정비와 함께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체계적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2013년 당시 앞서 논의한 문화도시 체계전환 필요성 인식과 함께 정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²⁾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회의와 지역포럼, 종합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그 결과 지역거점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현재적 현황파악과 문제점 발견, 선행제도 및 사업에 대한 검토와 분석 등이 이루어져 문화도시의 추진의 관점을 전체적으로 현 시점에 맞게 전환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 및 사업체계를 구상하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지역문화 관련 법·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이다. 특히 법 제4장의 15조(문화도시의 지정) 및 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등에 문화도시가 정식 제시되면서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국내 정식 근거를 가지는 제도와 사업으로 문화도시가 추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이후 2014년에는 2013년의 연구 및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 및 지역문화진흥법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사업 성격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설계되어 추진되기에 이른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그 핵심가치를 도시문화 중심의 사회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의 도시발전 기반마련에 두고 있다. 기존의 지역거점문

화도시가 하드웨어 인프라 및 브랜드 중심의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휴먼웨어로서의 문화인과 지역주민, 그리고 도시에서 생성 및 향유되는 문화적 소프트웨어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존사업과는 다른 과정 및 방법으로 추진되었으며 문화도시에 대한 지역의 실제적인 관심, 그리고 본격적인 문화도시 추진의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 문화도시 최근동향 - 2018년~2020년 현재

문화도시의 최근 동향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2020년 현재까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016년 말까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는 문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³⁾가 다시 한번 더 이루어졌으며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문화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이 포함⁴⁾되면서 문화도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실제적 정책 추진동력이 마련된다.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1차 문화도시 지정신청·접수계획(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포함)”을 공고하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 및 그에 따른 사업이 정식 추진되기에 이른다. 이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약 5년만의 추진으로 문화도시의 추진이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공식적인 정책 제도이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공표한 것이기에 국내에서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추진에 대한 제도와 과정이 큰 틀에서 정립되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8월, 19개 도시가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접수하게 되면서 문화도시 지정과정이 본격화되었고 동년 12월, 문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문화도시가 정식
제시되면서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국내 정식 근거를 가지는
제도와 사업으로
문화도시가 추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문화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이 포함되면서
문화도시의 본격 추진을
위한 실제적 정책
추진동력이 마련*

2)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도시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3)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4) 국정과제 67-4: 지역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문화도시 활성화)

동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개 도시의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이 이루어져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 10개소가 정해지게 된다.

체육관광부에서 10개 도시의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이 이루어져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 10개소(대구광역시 / 부천시 / 원주시 / 청주시 / 천안시 / 남원시 / 포항시 / 김해시 / 서귀포시 / 부산 영도구)가 정해지게 된다.

2019년에는 10개 예비도시가 약 1년간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각 도시는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각각의 도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 추진방향에 따라 고유성 및 정체성을 표출하기 위한 예비사업 추진과 문화도시의 중·장기적 추진을 이끌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주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가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최종심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각 예비도시는 문화도시 추진에 있어 문화를 통한 도시의 협력과 연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중심의 문화도시 추진과 상생체계를 마련해나갔다.

대구 광역시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
경기 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강원 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충남 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전북 남원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문화도시 남원
경북 포항시	삶의 전환, 도시의 미래, 철의 도시, 문화도시 포항
경남 김해시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표1 | 제1차 문화도시 지정 예비도시 10개소 현황

또한 그 과정에서 각 예비도시는 문화도시 추진에 있어 문화를 통한 도시의 협력과 연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중심의 문화도시 추진과 상생

체계를 마련해나갔다.

이와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접수계획”을 공고하고 전국 25개 도시의 지정신청을 접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2019년 12월, 마침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제1차 문화도시(7개 도시)가 정식 지정되었고,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10개 도시)의 계획 승인 또한 이루어져 이제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은 정식 추진을 위한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으며 2020년 1월 현재 그 첫 시작 지점에 서있다.

4. 문화도시 추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와 성과⁵⁾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 추진에 대한 흐름과 동향을 파악해보고 각각의 과정에서 나타난 현황과 중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약 20년의 흐름과 정식의 문화도시를 준비해온 과정 속에서 “문화도시”라는 이름은 이미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정책에 많은 이슈와 과제들을 도출해왔다.

특히 2018년 5월 문화도시 정책이 문화를 통한 사회발전프로젝트로서 정식으로 공표되어 새롭게 시작된 이후 2020년 제1차 문화도시 지정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년간 짧지만 긴 여정이 함축된 시간 속에 지역문화의 지형변화는 현재 학계와 현장, 그리고 도시의 사람들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으로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5) “4.새로운 문화도시 추진 과정의 현재적 성과”의 내용은 참고문헌의 자료 중 “조광호(2019)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 소개, 2019 문화예술복합학 공동학술대회 문화도시 특별세션 자료집”의 정책제언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및 발췌하여 작성한 원고임

그 간 새로운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이 준비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끌어낸 이슈 및 현재적 성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문화를 통한 지역경영의 시각 생성 및 공유

첫째, 문화도시를 통해 문화로 지역을 종합하여 보는 도시담론이 지역에서 생성되고 사회적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 전체를 문화로 조망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보았던가를 생각해보면 이전까지는 없었던 관점을 가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며 나, 공동체, 마을을 넘어 이제 도시로 문화를 바라보는 종합시각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와 같이 도시의 문화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과정 및 시도를 통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를 문화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을 만들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문화도시, 지역에서 분권과 자치의 신호탄

둘째, 문화都市는 지역이 지역 스스로 만들과 제안하여 실행하는 정책사업으로 분권과 자치의 시작을 위한 지역 자체적 신호탄이 되어주고 있다. 문화도시 사업은 중앙정부가 정해주는 사업내용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업을 개발 및 선택하고 직접 설계하여 제안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이를 현장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정책과 사업의 기초 틀은 같으나 각각의 도시가 상

상하고 생각하는대로 고유성을 가지게 되며 각 도시가 원하는 각각의 모습으로 정책과 사업이 실현된다.

이는 지역이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자율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분권과 자치의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지역의 도시는 문화도시를 통해 문화정책 관점에서의 분권과 자치를 학습해나가면서 지역의 자치방법론을 찾아가는 그 첫 번째 지점들을 찾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 문화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과정 정착

셋째,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시민 참여 및 숙의공론의 과정이 기본절차이자 의무로 포함되면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적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에 의한 숙의-공론의 과정은 기본이자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요소이며 사업의 추진과정 또한 공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함께 추진해나가는 구도로 정착되고 있다.

이는 문화도시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어 그 도시의 문화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지역을 전체적으로 고민하며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사회적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화도시 추진이 ‘문화를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로서의 본질적 의미를 찾고 도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과정적 성과를 점차적으로 도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도시의 문화에 대한 담론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과정 및 시도를 통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를 문화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을 만들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효과

지역이 스스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업을 개발 및 선택하고 직접 설계하여 제안하는 사업으로 추진

시민이 주인이 되어 그 도시의 문화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지역을 전체적으로 고민하며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사회적 과정에 해당하는 것

5.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위와 같이 새로운 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는 최종적 성과라기보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로서 향후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에 추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향후 문화도시 추진을 통해 무엇을 만들고 이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문화도시들이 유쾌한 고민을 해나가야 할 단서와 의제에 대해 몇 가지 축약하여 제안해보고자 한다.

■ 문화도시 효과 생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문화도시 추진을 통해 문화와 사회 각분야가 연결되는 문화와 사회의 가치사슬 연결과 그 효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그 끝에는 이것이 사회발전 효과로서 나타나야 한다.

첫째, 향후 문화도시 추진을 통해 문화와 사회 각분야가 연결되는 문화와 사회의 가치사슬 연결과 그 효과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그 끝에는 이것이 사회발전 효과로서 나타나야 한다.

둘째, 지역의 각 문화도시에서 도시가 지향하는 문화도시의 가치와 의미를 한 번에 파악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도시의 작은 것대대표가 생성되어야 한다. 도시 전체보다는 그에 앞서 도시의 부분적인 장소 및 구역에서 앵커링 효과를 이끌어내는 창의문화지구 또는 지대가 생기고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도시의 자체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내력이 모이고, 이 내적 힘들이 외부의 도시 및 지역과 연결되어 도시의 외력을 확장하는 글로벌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더 많은 도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참여는 도시의 대의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 문화도시 지속가능을 위한 지금의 준비 제언

첫째, 도시의 대다수, 즉 더 많은 도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참여는 도시의 대의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에도 문화도시의 준비 및 지정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그 의미는 크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민 참여의 범위와 경계가 한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지평을 넓혀나가 도시 시민의 대다수가 참여하는 도시의 대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대의로서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의 시작이다.

둘째, 지역은 문화도시가 단지 국가 및 공공행정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5년의 정책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위한 계획과 사업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가 지역의 가치이자 철학으로서 그 위상이 정립되고 10년 후, 나아가 20년 후 까지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도시의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구상해야 하며 이를 도시의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여 지금부터 계획하고 중·장기적 추진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 문화도시 정책 지원·관리에 대한 제언

첫째, 중앙정부는 문화도시 추진과정에 대한 지원방법론 및 성과관리지표 등 향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기 위한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연구 R&D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지원기관 역할을 하는 문화도시지원센터 구성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센터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전문적인 정책추진 및 사업

지원,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및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지역 스스로의 고민에 대한 제언

첫째, 지역은 도시 상생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반 플랫폼으로서 지역 중심의 문화도시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었으므로 이를 적극 활성화해야 하며 문화도시 상호의 신뢰와 연대 속에 도시상생을 통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각 도시의 현장에서는 도시 자체적으로 문화적 힘을 어떻게 모으고 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갖추고 독점의 문화가 아닌 도시의 집단지성을 모아 함께 풀어나가는 문화적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6. 맺음말

2020년 1월 현재, 법에 의해 지정된 제1차 문화도시들은 도시의 문화를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나갈 많은 일들을 구상하고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시작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이보다 더 많은 도시들이 제2차,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야 비로소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이 실제 지역에서 작동하고 우리가 사는 도시를 문화로 움직이며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문화로 도시를 움직이고 변화시켜 나가는 일은 그 도시가 생성되어 지금까지 유지해온 사회의 시간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특히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의 수 만큼이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더해 나가면서 도시의 모든 문화를 알고 만들어가야 하는 거대한 작업일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시대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이자 태제라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문화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꿈꾸며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랍한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기 위한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연구 R&D가 필요

지역은 도시 상생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및 지원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9). 문화적 지역재생 정책 및 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 서우석, 조광호(2019), 문화도시 사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 유럽문화수도과 한국 문화도시 사업의 전개과정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 한국문화경제학회「문화경제 연구」, 제22권 제1호, pp 129~160.
- 조광호(2014), 문화도시 문화마을 종합심포지엄 자료집 - 문화도시 지금까지 10년, 앞으로의 10년을 위한 제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광호(2018), 문화도시 정책사업 설명회 자료집 -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조광호(2019) 문화도시 정책과 사업 소개, 2019 문화예술복합형 공동학술대회 문화도시 특별세션 자료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문화도시문화마을 포럼 자료집(서울/전주/경주/공주·부여/종합심포지엄).

